

말하고 쓰는 自由

사치한 주문은 되도록 줄이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어느 모로 생각하든지 꼭 必要한 것은 말하고 글을 쓸 수 있는 自由다. 民主社會란 民의 意思소통의 길을 여는 것으로 始發이 될 게 아닌가. 意思소통할 수 있는 매개가 있어야 뜻을 모으고, 그것이 반영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일이 장애를 받고 있으면 다른 일손을 다 놓고라도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전설! 난 그것을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 있는 주체성을 수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던 서구적 사고나 문화, 제도에 대해서 일단 거리를 두고 〈우리끼리〉 처리하려는 자세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끼리〉 말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자유 빼고 다른 길은 없지 않겠는가? 한국적 민주주의란 한국사람들끼리 흥금을 털어놓고 우리의 당면과제를 의논해서—— 이렇게 하면 의논과정이 다소 소란 하더라도—— 거기 최대 공약수를 집약해서 현실화하면 그게 한국적 민주주의의 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쓰고 말하는 데 처음부터 어떤 제동이 걸리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또 가만히 있다가 누가 해다 준 밥이나 먹는 결과를 가져오는 길 외에는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國民〈總和〉를 절대필요로 한다. 〈總和〉라는 용어는 싫지만 國民의 뜻이 한글수로 集中돼야 우리는 우리로서 우리의 길을 타개할 수 있다고 믿기에 이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도 역시 말과 글의 자유가 절대 조건이다. 〈말 참여〉 안하고 한 식구 될 수 있나. 해다준 밥이나 먹고야 소외자의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나!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긍지를 주어야 한다. 그것은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데 〈말 참여〉한 결과를 우리의 것으로 자랑할 수 있을 때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다. 〈주잔〉